



홍성만 미카엘 신부 |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담당

## 알기 때문에 이웃을 더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, 그 얇은 내적인 지식이 됩니다

지금까지 갈릴래아 호숫가 주변에서 말씀과 이적으로  
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던 예수님께서, 제자들과 함께  
고향으로 오시어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.

“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. ‘저 사람이 어  
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?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?  
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! 저 사람은 목수로서  
마리아의 아들이며, 야고보, 요세, 유다, 시몬과 형제간이 아  
닌가?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?’  
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.”(마르 6,2-3)

“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” 말하는 그들은 바로 말씀이  
끝난 그 순간에는 그분을 좋게 말하며, 그분의 입에서 나오  
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던 사람들입니다.(루카 4,22 참조)  
그러나 ‘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?’ 하  
면서 분위기는 이내 싸늘해집니다. 이렇게 싸늘해진 분위  
기의 중심에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편견과 선입견  
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선입견과 편견은 다름 아  
닌 예수님의 가족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것에서부  
터 시작됩니다. 예수님의 평범한 가정사를 안다는 사실이  
선입견과 편견으로 이어지면서,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 
하시는 말씀과 기적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.

‘혹시 이러한 현상이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한가운

데서 일어나지는 않는가?’ 뒤돌아보니 그렇지 않다고 부인  
할 수 없습니다. 저는 가끔 제가 잘 안다고 여기는 친구나 어  
떤 신자를 보며 화를 벌컥 내는 경우가 있는데, 화를 내는 내  
속마음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이렇습니다. ‘또 그런 식으  
로 하는구나!’, ‘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식으로!’라는 생각  
이 앞서며 화가 치미는 것입니다. 그러나 이내 기도하던 중  
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. 상대방에 대해 나의 선입견과 편  
견이 얼마나 깊이 나를 점령하고 있는지 말입니다. 그리고  
편견과 선입견은 내가 그를 잘 안다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  
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마음 깊이 반성하였습니다. 내가  
상대를 안다는 것이 상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데 도움  
이 되지 못한다면 이 얇은 나에게 결코 득이 될 수 없다는 것  
입니다. 그 누구를 얇으로써 그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 
또 사랑할 수 있게 될 때, 비로소 그 얇은 나에게 소중한 것  
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 
그만큼 자신과 이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 
되어야 합니다. 그러면 비로소 그 얇은 나의 내적 지식으로  
서 내가 살아가는데 참된 구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.

사실 저는 이를 알고도 실천을 하지 못하곤 하였습니다.  
그런데 일상 속에서 선입견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 
상대를 알기 때문에, 더 배려하며 받아들이는 어느 신자의  
표양을 보면서,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. 그분을  
통해서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.



### 수서동성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99

수서동성당은 1992년 9월 개포동성당과 포이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고, 일원동성당(1994년)을 분할했습니다. 당  
시 일원동 639-7(원일빌딩)에서 본당을 설립하여 10월에 부임한 초대 박 보니파시오 신부가 성당을 건축했습니다. 이어  
서 1993년 11월에는 현 위치(수서동 739)로 본당을 이전하였고, 1994년 2월에는 수서, 일원지구의 신자 증가로 일원동성  
당을 분당시켰습니다. 1999년 9월 새 성전 봉헌 미사를 드렸고, 2011년 11월에는 본당 설립 20주년을 기념하여 500여  
명의 신자가 건진성사를 받았습니다.

김명중 시몬 신부 | 홍보국 차장

